

보 도 자 료



- ◆ 2024. 7. 4. (목) 배포
- 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
고주희 홍보실 행정원 ☎ 032-770-8639

극지연구소,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참가 극지연 캐릭터 <쁘리> '예민한 뿌리 좀 도와줄래' 특별 전시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오늘(4일)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개최하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에 극지연구소의 펭귄 캐릭터 '쁘리'가 참가한다고 밝혔다.
- 뿌리의 첫 번째 특별 전시 "남극 대원 예민한 뿌리 좀 도와줄래?"는 기후변화로 남극의 집을 잃어서 예민해진 캐릭터의 세계관을 활용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 근처에서 태어나 극지연구소의 명예대원으로 성장한 뿌리의 모습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냈다. 남극에서 가져온 이끼와 암석들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실제 남극의 모습을 보고 만지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.
- 뿌리를 돕기 위한 친환경·에너지절약 미션 수행 이벤트도 진행된다.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활동 후 인증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뿌리의 첫 번째 굿즈인 친환경 쿨러백을 증정할 예정이다.

- 뿌리는 극지연구소가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4월 25일 세계 펭귄의 날에 공표한 극지연구소의 공식 캐릭터이며, 뿌리의 이야기는 인스타그램에서 툰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.
-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는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전시회로, 일러스트레이션, 그래픽디자인,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작품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 축제이다.
- 강민구 극지연구소 홍보실장은 “더 많은 국민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하게 됐다. 귀엽지만 예민한 뿌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극지연구소의 대응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”라고 전했다.

붙임. '뿌리'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전시

